

전북대 신입 교수들, 2017만원 발전기금 기탁

임용 연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 담아내

“전북대 가족이 된 2017년을 영원히 기억하고 개교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모았습니다” 올해 신입 교수로 임용된 9명의 교수들이 대학 발전과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기탁에 참여한 교수는 송준희 교수(융합기술공학과)를 비롯 김필기(기계설계공학부) 김태환(안자시스템공학과) 정명준(목재응용과학과) 김유근(윤리교육과) 송지수(의학과) 김경수(화학과) 이대우(치위학과) 김정현(치위학과) 교수 등이다.

이들 신입 교수들은 26일 이날도 총장을 찾아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대학 발전에 소중하게 써달라고 밝혔다.

신입 교수들은 임용된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고 상징적 의미를 담은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전대 가족이 된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이러한 전통도 정립돼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특히 이들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가장 한국적인



올해 신입 교수로 임용된 9명의 교수들이 대학 발전과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와·현수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총장은 “대학에 임용된 해를 기념해 대학발전에 큰 뜻을 모아주신 신입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며 “개교 70년을 맞은 우리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교수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정읍 소성면, 어르신 12세대 방문 식품품 전달 나서

소성면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면 직원 결연 어르신 12세대를 방문해 김과 계란 등의 식품품(3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활동은 면 특수시책 사업인 희망올타리사업(소성 사랑콜) 일환으로 실시됐다.

면 직원들은 독거 어르신들과 1대1로 결연, 매월 2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각별한 정을 나눠주고 있다. 전화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함은 물론 분기별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고, 정성껏 마련한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보화마을 한모(80)씨는 “거동이 힘들고 자식들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었는데 면 직원들이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희망올타리사업을 펼쳐서 어르신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롯데백 전주점,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루데 봉사단'은 26일 전주 서신동 동아힐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경로당에 모인 약 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혈압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미세먼지 마스크와 물티슈, 건강사탕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롯데백화점 '사루데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매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농협 전주완주지구지부, 농촌일손돕기 전개

농협 전주완주지구지부는 26일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신보 전 북지역보증센터, 전주농협과 함께 전주시 원당동 추동마을 김금순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전개했다.

이날 농협 임직원들은 농가 하우스에서 철재 뽑기 작업을 한 후, 추동마을에서 쓰레기 줍기, 폐비닐 수거 등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박성일 지부장은 “최근 농촌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일손 부족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 공군 제 8 전투비행단장 취임식

지난 25일 미 공군 제 8 전투비행단의 새로운 단장으로 데이비드 슈메이커 대령(Col. David Shoemaker)이 취임했다.

7 공군 사령관인 토마스 버거슨 준장(Lt Gen. Thomas Bergeson)이 주재한 취임식에서 슈메이커 대령은 참석한 가족들과 지난 한 해동안 울프팩을 이끌었던 도지어 대령(Col. Dozier)에게 감사사를 표하며 울프팩(군산기지)의 새로운 단장으로 취임했다.

57대 울프(군산 비행단장)로 취임한 슈메이커 대령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군산 기지 제 8작전전대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 35 전투비행대에서 근무한 경험까지 포함 이번이 군산기지에서의 세번째 근무다.

/군산=장 현 기자



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초소방문 간담회 열어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홍수)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규)가 강.절도 및 교통사고예방 위한 홍보 대책으로 지구대장, 순찰팀장들이 관할 자율방범대 5개 초소를 방문 임원들과 주기적 합동순찰, 근무지원, 정비보급 등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3대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행위 근절, 아파트내 강.절도예방, 교통사고예방 캠페인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주 아파트,상가,학교주변등에서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요원으로 나서지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박현규 효자지구대장은 민경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등과도 범죄예방 정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민경협력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무주경찰서, 청소년의 달 맞이 장학금·장학증서 전달식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경찰발전위원회(백성기), 모범 청소년 10명, 학부모 등 총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김경민(안성초 6년) 학생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아 너무 뿌듯하다. 앞으로도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영민 무주경찰서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준 경찰발전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정 무주에서 학업과 인성을 고루 갖추어 사회의 우수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효지지사 010-8845-9835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6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동지동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가난한 교사가 만든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